

(발제2)

## ‘결인청’의 역사적 실재와 활용방향

한국학중앙연구원

임 선 빈

### 1. 머리말

토정 이지함(1517~1578)은 그의 학문이나 역사적 위상보다는 민중에게 친숙한 『토정비결』의 저자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지함을 자기 고장의 역사적 인물로 선정하여 선양하고 있는데, 이 또한 토정비결에서 비롯된 지명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동안 이지함에 대한 연구는 이지함 자신의 저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 사상계의 동향을 주자성리학 일색으로 파악하는 연구동향 때문에 체계적 연구가 많지 않았다. 강성조는 사화라는 시대상황에서 자신의 학문과 경륜을 편 학자라는 관점에서 이지함을 연구했으며, 윤태현은 토정을 실학사상의 개조로 파악한 연구를 하였고, 김용덕은 이지함의 경제사상이 박제가 등 북학파 학자들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신병주는 토정을 처사형 학자로 보고, 그의 도학적 위상을 연구하였다.<sup>2)</sup>

토정설화는 『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 84편, 『어우야담(於于野談)』, 『계서야담』, 『기문총화』등 조선조 문헌설화집에 수록된 자료 27편, 합계 총 111편의 설화가 전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운식의 연구가 있다.<sup>3)</sup>

토정비결에 관한 연구는 『토정비결』만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는 많지 않고, 토정비결과 다른 비결서를 비교한 연구, 토정비결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토정 이지함에 대한 연구에서 간간히 언급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토정비결과 이지함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다.

아산은 토정 이지함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다가 2개월여 만에 타계한 고을이다. 따라서 아산에는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유무형의 역사자원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결인청’도 있다. 아산에서는 이와 같은 토정 이지함의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필자도 이지함이 태어나고 문헌 고장인 보령시에서 토정 이지함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의 책임을 맡아 토정 이지함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다.(보령시·충남발전연구원, 『토정 이지함을 활용한 축제 개발 연구』, 2004. 2.)

2) 강성조, 「토정 이지함 연구」, 『인천대학 논문집』5, 1983

윤태현, 「토정의 사회개혁사상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2

김용덕, 「이지함의 경제사상」, 『한국의 사상』, 1984, 열음사

신병주, 「토정 이지함의 학풍과 사회경제사상」, 『규장각』19,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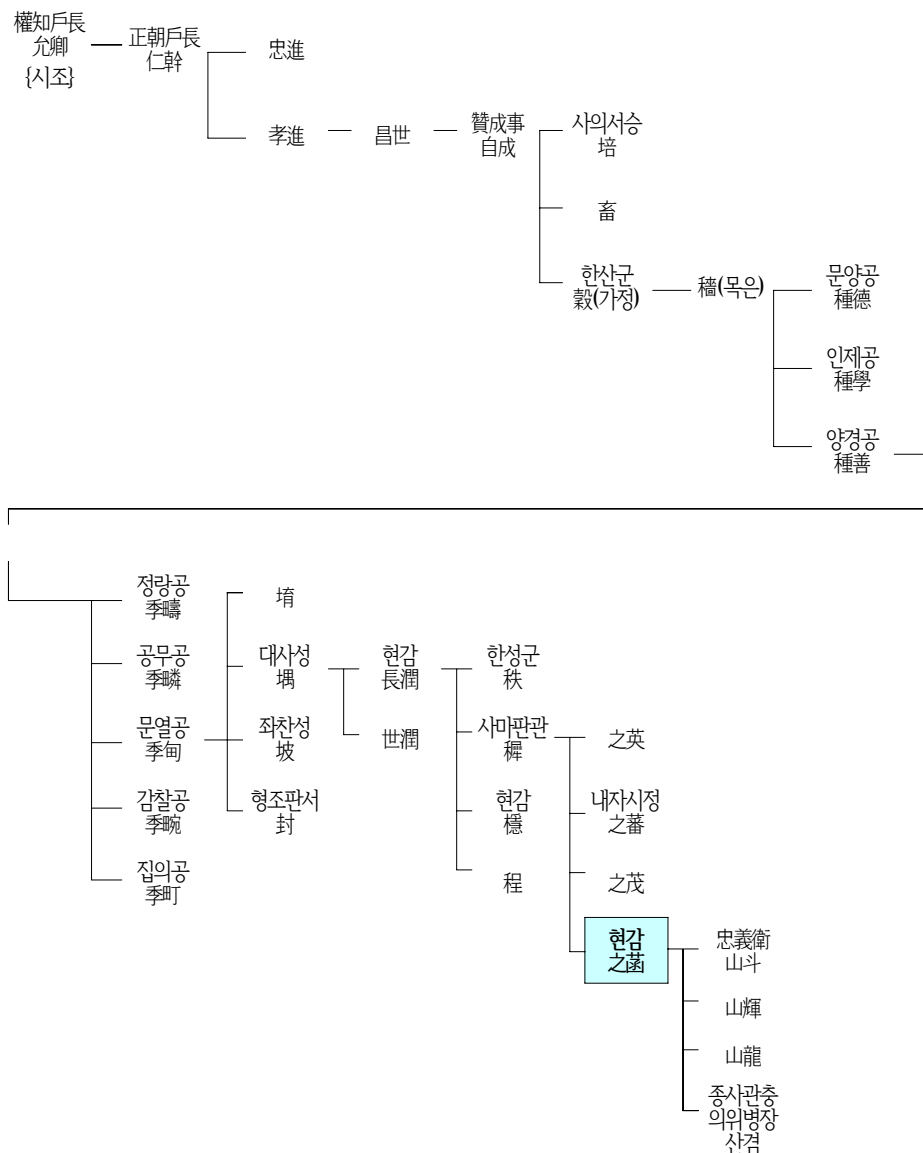
3)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토정의 모습」, 『설화와 역사』, 2000, 집문당

최운식, 「토정 이지함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33-1, 2001

## 2. 이지함의 家系와 생애

토정 이지함은 한산이씨로 여말 삼은(三隱) 중 1인인 목은 이색의 7세손이다. 한산이씨는 이색 이후 고위관직을 역임한 인물이 계속 배출되었고, 특히 목은의 손자이자 이지함의 고조부인 이계전(李季甸)은 1453년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정인지 등과 함께 정난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문의 영예는 조금 퇴색하여, 이지함의 조부 이장윤(李長潤)과 아버지 이치(李穰)는 현감과 현령에 머물렀다. 아버지 이치는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이미 사망한 종조부(從祖父) 이파(李坡)의 성종 때의 폐비사건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났고,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수원통판(水原通判)을 지내다 이지함이 14세 되던 해에 죽었다.

### 토정 이지함 가계도



이지함의 집안은 고조부 이계전이 공신에 녹훈되면서 전국 각지의 토지를 사패지로 받게 되었으나, 이지함 선대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사와 생원 급제자의 명단인 『사마방목』에서 이지함의 조부와 부친의 거주지도 서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토정 이지함의 출생지는 서울이 아니라 외가인 보령으로 추측된다. 토정이 살았던 시대인 조선전기의 혼례 풍습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으므로, 아마 외가인 지금의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이지함의 외가인 광산김씨가 고려말부터 터를 잡아 살아온 세거지이다.

토정의 생애는 태어나서 형 이지번(李之蕃)에게 학문을 배우던 시기와, 혼인 후 충주에서 거주하며 정치적 불행을 겪던 시기, 그 후 전국을 유랑하면서 대학자들과 교류하며 경제사상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 마지막으로 포천과 아산의 현감으로 나아가 뜻을 펼치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토정 이지함이 보령에서 태어난 후 초년기는 외가인 보령과 관직에 있던 부친을 따라 서울 등지에서 보냈을 것으로 여겨진다. 15세에 부친을 잃고, 17세에 모친이 사망하자 3년간 형 이지번과 함께 여막 살이를 하였다. 3년상을 치른 뒤에는 형 이지번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며 학업에 전념하였다.

그 후 전주이씨 모산수(毛山守) 이정랑(李呈琅)의 딸과 혼인한 후 처가인 충청북도 충주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1548년 절친한 친구였던 사관 안명세(安名世)가 을사사화의 여파로 사형 당하자, 이지함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중봉 조헌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이지함이 안명세의 처형을 보고 해도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미치광이로 세상을 도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바로 이듬해인 1549년(명종 5)에 ‘이홍남 고변사건(李洪南 告變事件)’에 연루되어 장인인 이정랑이 장형(杖刑)을 받다가 사망하고, 사후에 능지처사되며 선원록(璿源錄)에서 자손의 이름이 삭제되는 등, 처가가 큰 화를 입게 되자 이지함은 일가를 이끌고 충주를 떠났다고 한다.

충주를 떠난 후에는 보령과 서울 마포 등을 주된 근거지로 하며, 전국을 유랑 하였다. 사화에 친구를 잃고, 처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사상의 형성과 정치참여 의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적 불행 속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민생의 현실을 목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지함의 유랑으로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지함의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지함은 1573년(선조 6)에 비로소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탁행(卓行)으로 천거받아 종6품직 벼슬에 올라 1574년 포천현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경제책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였다. 1578년 다시 아산현감에 제수되어 비로소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아산현감 재직 중 조정에 올린 시무책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 3. 이지함의 仕宦과 업적

토정 이지함은 평생 유랑생활을 하다가, 57세가 넘은 만년에 두 차례 벼슬길에 나아갔으니,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이다.

먼저 선조 6년(1573, 이지함 57세)에 이조에서 은둔한 선비 중 학행이 두드러지게 알려진 선비 5인을 추천하였다. 이때 정인홍, 최영경 등 남명 조식의 문인들과 함께 이지함을 거론하고, 그들에게 참상관(參上官)에 상당한 벼슬을 줄 것을 청하여, 6품 관직을 내렸다.<sup>4)</sup> 이때 이지함은 포천현감에 제수되어 1573년(선조 6) 7월 부임하였다.<sup>5)</sup> 현감은 외관직 동반 종6품직이다. 그러나 1년 후인 1574년(선조 7, 58세)

4)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6월 3일(신해)조, 『선조수정실록』 권7, 선조 6년 5월 1일(경진)조.

5)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7월 6일(갑신)조, 12일(경인)조.

8월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에 조정에 상소를 올렸으나 실현되지 않자, 병을 핑계하고 사직한 것이다.<sup>6)</sup>

당시의 상소문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세가지 방책[三計策]이 제시되었다. 상책은 인심을 바르게 하기, 중책은 이조와 병조의 적절한 관리, 하책은 육지와 해양의 적극적인 자원 개발이었다. 이지함은 이 3책 가운데 빈민구제책으로 하책을 가장 중시하였으니, 그의 사상과 현실관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는 재임 중 무주(無主) 무소속의 해도(海島)를 얻어 기민으로 하여금 어염에 종사케 하여 그 소득으로 양곡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군현이 독자적 경제단위로 존재함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아에서만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 이용할 수 있다는 폐쇄성을 경제개발의 질곡으로 보고 그 지양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반대로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선조수정실록에는 “포천 현감(抱川縣監) 이지함(李芝菡)은 원으로 있으면서 스스로의 처신을 검소하게 하고 백성 보기를 자식처럼 하였다. 고을이 빈약하여 곡식이 모자라자 조정에 건백하여 해읍(海邑)의 어량(漁梁)을 절수(折受)받아 곡식을 사서 빈약한 재정을 보충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이 따라주지 않았다. 지함은 본디 고을 원으로 오랫동안 머무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곧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돌아갔다.”<sup>7)</sup>고 기록되었다.

이지함이 포천현감으로 재직시의 전설 및 일화로는 재직 중 임진강의 범람을 미리 알아서 많은 생명을 구제하였으며, 포천현감에 부임할 때 소박한 옷차림과 소박한 음식상을 받아 아전을 놀라게 한 일화가 전해진다.<sup>8)</sup>

이지함은 1578년(선조 11, 62세) 5월에 탁행(卓行)이 있다는 천거(薦舉)를 받아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이지함에게 아산현감을 제배하자, 학행으로 부름 받은 신하를 외관에 보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공의(公議)가 시끄럽다하여 사헌부에서 이지함을 상당한 다른 관직에 다시 제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어진사람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등용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헌부의 청을 윤택하지 않았다.<sup>9)</sup>

이지함은 1578년(선조 11) 5월에 부임하자 바로 시폐를 상소하였다. 이 상소의 내용은 군제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첫째 군적(軍籍)의 정상화, 둘째 군액(軍額)과 군역(軍役)의 감소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선조는 ‘그대의 뜻이 옳다’라는 답을 내렸지만,<sup>10)</sup> 이지함이 제안한 시책을 따른 것은 아니었고, 이지함이 곧 아산현 관아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지함의 제안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실행되지는 못하였다.<sup>11)</sup>

이지함은 아산현감 재직 중에 죽었으므로 아산지역에 전해지는 흥미로운 전설이 많다. 우선 현감 재직시의 활약과 관련한 전설로는 ① 걸인청을 세우고 직접 걸인청에 나가 거기에 온 사람들을 살피는 이야기, ② 걸인청에 온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는 미투리를 삼도록 하고, 친히 감독하여 하루에 10결레씩 만들어 팔게 한 이야기, ③ 걸인청에 오는 유랑민을 보살피다가 해사에서 하룻밤 인연을 맺은 후로 잊지 못하던 희수를 만난 이야기, ④ 아산현의 뚝방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진상품이 되어 백성

6) 『선조수정실록』 권8, 선조 7년 8월 1일(임인)조.

7) 위와 같음.

8) 소박한 음식상을 받은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정은 부임할 때 나발과 환영행사를 물리치고 조용히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 도착한 토정은 베옷에 짚신을 갈아입었다. 때가 되어 들어온 저녁상에는 진수성찬이 가득 올라와 있었다. 토정이 수저도 들지 않고 물끄러미 상을 내려다보자 아전들은 상이 빈약해서 그러는 것으로 짐작했는지 황급히 더 큰 상을 차려 왔다. 그래도 토정은 밥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먹을 만 한게 없소」 관리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허둥댔다. 그러자 토정은 넋지시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을 달게 먹었다.

9)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5월 5일(을묘)조.

10)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5월 6일(병진)조.

11) 사실 충청도 도사가 아산현감 이지함의 상소를 올리기도 전에 이지함은 관아에서 타계했다.

들이 그것을 낚느라 고생하는 사실을 알고 뽕병을 흙으로 매워버렸다는 이야기 등이 있으며, 죽음과 관련한 전설로는 ① 이지함에게 불만을 품은 아전이 이지함이 지네즙을 먹고서 생밤을 먹어야 하는데 생밤 대신 버드나무 껍을 주어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② 토정이 영인면 어금니 바위 아래에 금은 보화를 숨긴 것으로 알고 토정이 생밤을 먹어야 할 때 버드나무 껍을 주어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

아산에는 이지함과 관련된 유적으로 인산서원(아산시 염치면 서원리 서원골), 이지함 영모비(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여민루(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향교(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어금니바위(토정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 등이 있다.

#### 4. 결인청의 實在와 記憶

이지함이 생존해 있던 시기의 당대 기록물에서는 ‘결인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포천현감과 아산현감 재임과 관련된 실록기사에도 결인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지함이 생존했던 시기의 실록기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춘추관일기, 승정원일기, 각사등록 등과 같은 관련 기록들이 모두 소실되어 실록 편찬의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조실록의 임진왜란 이전 부분은 어느 실록보다도 부실하다. 영세한 사료를 수집하여 편찬함으로써 분량이 매우 적고, 기사도 소략하다. 특히 광해군 재위시기에 편찬된 선조실록(1609년 7월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616년 11월에 완성)은 임진왜란 이전의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인조반정 이후의 서인 정권은 선조실록의 잘못된 사실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서인세력에게 유리한 실록을 남기기 위해) 선조수정실록 편찬을 시도하여 1657년(효종 8) 9월에 완성하였다. 이는 선조가 붕어한지 49년 후이며, 이지함이 타계한지는 79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이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지함에 관한 기록이 선조실록보다 훨씬 자세하며, 특히 졸기의 기사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이 선조수정실록의 이지함 졸기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① 모산수(毛山守) 정랑(呈琅)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초례를 지낸 다음 날 밖에 나갔다가 늦게야 들어왔다. 집 사람들이 그가 나갈 때 입었던 새 도포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니, 홍제교(弘濟橋)를 지나다가 얼어서 죽게 된 거지 아이들을 만나 도포를 세 폭으로 나누어 세 아이에게 입혀주었다고 하였다.<sup>12)</sup>

②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내가 1백 리 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만들고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리게 하여 나라의 보장(保障)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말년에 아산군(牙山郡)에 부임하여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의 정치는 백성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서 해를 없애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한창 시설을 갖추어 갔는데 갑자기 병으로 졸하니, 고을 사람들은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였다.<sup>13)</sup>

12) 『선조수정실록』 권12, 선조 11년 7월 1일(경술)조.

13) 위와 같음.

①은 이지함이 혼인을 했을 때이니, 20세 전후 시기의 일이다. 이지함은 젊었을 때부터 기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구휼하는 심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를 보면 이지함은 고을의 목민관이 된다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여 2개월 남짓 재임하다가 타계하였지만, ‘백성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서 해를 없애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한창 시설을 갖추어나갔음[末年赴牙山爲政, 其治以愛民爲主, 除害祛弊, 方有施設]’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일컫는 시설 가운데 ‘결인청’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이지함 졸기는 선조수정실록이 완성된 시기가 1657년이니, 이지함이 졸한 1578년으로부터 79년이나 지난 이후의 기록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3세대에 걸친 후대인이 기억하고 싶은 이지함의 모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지함은 죽은지 135년이 지난 1713년(숙종 39)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40년이 지난 1718년(숙종 44)에는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sup>14)</sup> 그런데 이 시장을 사헌부 대사헌인 병산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이 찬했다. 시장의 내용은 이지함의 현손 이정익(李禎翊)의 가승(家乘)에 근거하고 있는데, 시장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일찍이 넓은 집을 지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곳에 두고 수공업을 가르쳐 각각 그들의 옷과 먹을 것을 마련하도록 하되, 가장 능력이 없는 자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면 하루에 일한 것으로 쌀 한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sup>15)</sup>

또한 2년이 지나 1720년에 초간된 토정유고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일>로 다음과 같은 결인청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다.

선생이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사농공가(士農工賈)에 수공업을 가르치되 모두 친절히 일러서 각각 의식이 넉넉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무능한 자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니 하루에 10결레를 만들어 팔수가 있었다. 하루 일한 것으로 쌀 한 말을 사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그 중에 남는 것으로 옷을 지어 입도록 하니, 두어달 사이에 의식이 모두 충족되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로써 본다면 어찌 백성이 게으름으로 주린 것이지 비록 노약하다고 하더라도 백가지에 하나라도 능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짚신도 삼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음을 보겠는가. 선생이 백성에게 가까운 효과를 보인 것이 오묘하다 할 것인저!<sup>16)</sup>

아마 이관명이 찬한 이지함 시장 안의 앞의 기사는 이 토정유고 유사(遺事)의 <흑인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위의 토정유고에 실린 ‘흑인기사’가 현재 확인되는 것으로는 결인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로 이해된다.<sup>17)</sup>

14) 『숙종실록』 권62, 숙종 44년 9월 17일(임진)조.

15) 嘗作廣屋 置寒乞人 教之以手業 各周其衣食 最下無能者 與之藁 使作芒鞋 一日之工 無不辦斗米[『土亭先生遺事』 권하, 土亭遺稿 附錄 諡狀; 『屏山集』 권11, 諡狀 土亭李公諡狀]

16) 先生哀流民弊衣乞食 爲作巨室以館之 誨之以手業 於土農工賈 無不面諭耳提 各周其衣食 而其中最無能者 與之禾藁 使作芒鞋 親董其役 一日能成十對 販之市 一日之工 無不辦斗米 推其剩以成衣 數月之間 衣食俱足 而不勝其苦 多有不告而遁者 以此觀之 蓋見生民因惰而飢雖疲癯百無一能 而未有不自爲芒鞋者 先生之示民近效妙矣哉 [『土亭先生遺事』 권하 記 遺事 出或人記事]

17) 이지함의 조카인 이산해가 찬한 이지함 묘갈명에는 결인청 기사가 없다.

그렇다면 위의 결인청에 관한 기사는 이지함의 생애 가운데 어느 시기의 일이었을까? 실록의 기사나 이관명이 찬한 시장에서는 위 기사를 아산현감 재위시기와 연계해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sup>18)</sup>

그러나 19세기의 자료에서는 결인청에 대한 설명이 보다 분명해진다. 조선말기의 문신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편찬한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이지함이 기민을 구할한 일[李之菡救活]

선조(宣祖) 3년(1570)에 영남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때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인(異人)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량하는 백성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밥을 구걸하는 꼴을 볼 때마다 여기고서 커다란 집을 지어 그들을 머물게 하고 수공업(手工業)을 가르쳐 각자 자기의 의식을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능한 자에게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고는 그 일을 감독하니, 하루에 능히 열 켄레를 만들어 냈다. 그것을 내다가 팔자, 하루에 일한 것으로 쌀 한 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남은 이익을 미루어 그들의 옷가지를 만들도록 하니, 서너 달 사이에 옷과 식량이 모두 충분해졌다.<sup>19)</sup>

위 기사는 결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앞의 토정유고에 실려있는 <혹인기사>와 내용상 동일하다. 그런데 임하필기 <이지함구활>에서는 1570년(선조 3) 영남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의 일이라고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다. 사실 1570년은 전국적인 대기근이 발생한 해로 특히 7월에는 경상도와 경기 지방에 풍수해가 심하였다.

반면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진황 6조의 제3조 규모에서 ‘어진 사람이 진흙하는 데는 불쌍히 여길 뿐이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다른 데로 가는 자는 머물러 두어, 내 고을이나 남의 고을이나 다름없이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토정 이지함의 예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현령으로 있을 때,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수공업(手工業)을 가르치되 모두 친절히 일러서 각자 의식이 넉넉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무능한 자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고 그들의 일하는 것을 감독하니, 하루에 10켄레(對)를 만들어 팔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루 일한 것으로 쌀 한 말을 사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그중에 남는 것으로 옷을 지어 입도록 하니, 두어 달 사이에 의식이 모두 충족되었다. ○ 살피건대, 이는 풍년든 해의 유민들이다.<sup>20)</sup>

다산 정약용의 위 기록은 이지함이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 현령[종5품직]은 이지함이 종6품의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의 관직만을 지낸 것으로 보아 현감의 오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 정약용의 위 기록은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18) 시장에서 아산현감 재위시기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後爲牙山縣監 又陳疏請減軍額 除一族法 言亦明白의當而寢不用 邑有池養魚 使民歲漁納官 民甚苦 先生塞其池 絕後患 教誘縣學 章甫之徒 講習文武才 期備邦家之用 未幾以疾卒于官 萬曆六年七月也 壽六十二 一邑之民 奔走號哭 如悲親戚

19) 『林下筆記』 권22 文獻指掌編 李之菡救活

20) 李土亭之菡 爲縣令 哀流民弊衣乞食 爲作巨室以館之 誨之以手業 無不面諭耳提 各周其衣食 其中最無能者 與之禾藁 使作藁鞋 親董其役 一日能成十對 販之市 一日之工 無不辦斗米 推其剩以成其衣 數月之間 衣食俱足 ○案此卽是豐歲之流民也[『목민심서』 賑荒 6조 제3조 規模]

이상 문헌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이지함의 결인청 운영에 대해서는 당대의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결인청 운영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다. 18세기 초에 이르면 결인청에 대한 구체화된 기록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언제 어디에서 결인청을 운영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9세기에 이르면, 보다 구체적인 결인청 운영 기록이 보이며,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1570년 영남’과 ‘토정 이지함이 현령으로 있을 때’의 두 가지 기록이 등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乞人廳’이라는 명칭을 문헌기록을 통해서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결인청에 관한 후대의 기억은 토정 이지함에 대한 신비함과 함께 민중들에게 점차 확대되고 증폭되어 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설화에서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sup>21)</sup>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현대의 소설’에서는 더욱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

소설 토정비결에서는 아산현감이 된 이지함이 결인청을 두고 유랑민을 보살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임종을 앞둔 토정을 만나려고 아산현에 간 고창 서기가 그를 숙소로 안내하는 관비에게 묻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여보게, 잠깐만, 이 방은 뭐하는 덴가?”

“예. 결인들이 쉬었다 가는 결인청입니다. … 이곳을 지나는 결인이면 아무나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제각기 기술을 익히고 적으나마 살림 밀천을 마련하면 양민이 되어서 이곳을 떠납니다. 그 동안 이곳을 스쳐간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제 이곳 아산의 결인이나 유랑민들은 다 없어졌으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찾아오는 바람에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감 어른은 조석으로 이곳에서 결인이나 유랑민들과 함께 진지를 드시고 같이 일도 하십니다.”<sup>22)</sup>

## 5. 결인청의 현대적 활용방향

토정 이지함은 호서지역의 명문 한산이씨 가문의 인물이다. 고조부 이계전은 정난 1등공신으로 세조 정권에 참여하였으며, 아버지 이치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토정은 외가인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을 오가며 자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형 이지번에게 수학하며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종친인 모산수 이정량의 딸과 혼인한 후에는 처가인 충주에 거주하였다. 토정은 절친한 친구가 사화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장인이 역모사건에 휘말려 처가가 멸문의 화를 입게 되자, 처사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서울 마포에 토정을 짓고 살았으며, 전국을 유랑하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와 교유 하였다. 말년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에 제수되었다. 고을 수령으로 자신의 경제 사상을 펼쳐보려 하였으나,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산현감 재임 중에 관아에서 사망하였다.

토정 이지함은 생애의 신비함과 극적요소, 애민사상과 청백리상(像)의 실천,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설과 일화, 『토정비결』과의 관련성 등으로 이제 현대인의 새로운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sup>23)</sup>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명상, 1991), 박정열의 『이지함(소설)토정비결』(고려출판문화공사, 1992), 윤태현의 『토정

21) 설화에 대해서는 앞에 인용한 최운식의 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22) 『소설 토정비결』(상), 새냄, 1993. 21쪽.

23) 토정설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신기한 전설을 남겨 현재 110여편이 확인 가능하다. 주로 풍수지리와, 주역에 통달하여 앞날을 미리 아는 기인의 면모가 돋보이며, 백성을 사랑했던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토정 이지함은 『토정비결』의 저자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정비결』은 토정의 저작이라기 보다는 후대에 제작된 비결서에 토정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지함』(식물추장, 2001), 문화영의 『소설 仙』(수선재, 2003) 등이 출판되어 일부는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올라 독자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아산은 토정 이지함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다가 2개월여 만에 타계한 고을이다. 그러나 지역 민들에게는 어느 목민관보다도 토정 이지함의 일화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아산현감 이지함에 대한 지역 민의 기대치가 컸던 만큼, 선정을 오래 베풀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정 이지함의 결인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연고지를 여러 지역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지함이 목민관으로 재임했던 아산지역은 이를 선점하여 활용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정 이지함에 대한 후대의 다양한 기억을 면밀히 검토하고, 역사적 실재 모습을 살피면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적 인물의 적극적 활용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본질이 왜곡됨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산에서 토정 이지함과 결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결인청’이라는 명칭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토정 이지함 당대의 자료나 후대의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문헌기록에서는 어디에서도 ‘乞人廳’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아마 결인들을 모아놓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복지기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乞人’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점에서 ‘결인청’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아니면 후대인들이 언제인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적 용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 ② ‘결인청’이 건립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

토정 이지함 사후 수백년 후이기는 하지만 19세기의 구체적인 기록묘사에 의하면, ‘결인청’의 위치는 ‘영남지역’과 ‘토정 이지함이 현령으로 부임했던 고을’로 나뉜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담론이 필요하다. 그 위치를 아산 고을로 상정할 경우에도 아산현의 어디에 ‘결인청’이 건립되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문헌기록에는 없다 하더라도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수집[전설, 소설, 스토리텔링 등 모든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③ ‘결인청’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만일 오늘날 아산에 결인청을 짓는다면 이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토정 이지함의 시대에 ‘결인청’이 지어졌다면, 이는 한옥일 것이다. 그러나 이 한옥이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당시에도 기와집은 많은 비용이 수반

되는 고급의 주택이었다. 과연 ‘결인청’을 그렇게 지었을까? 결인들을 진흥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다면 기와집은 지나친 사치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가집인가? 초가집을 짓는다면 몇 칸의 집이었을까? 문헌기록상에는 ‘施設’ ‘廣屋’ ‘巨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묘사는 찾을 길이 없다.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결인청’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면, 한옥보다 현대식 건물이 보다 효율성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 ④ 결인청의 기능과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결인청은 단순히 거지들을 돕기 위한 구휼에 그치지 않고, 주린 백성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기관’이었다. 이곳에서는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을 모두 가르친 것도 아니었다. 토정유고의 <혹인가사>에서는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사농공가(士農工賈)에 수공업을 가르친다’고 했으며, 다산 정약용의 묘사에서도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수공업(手工業)을 가르친’ 곳이라고 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이를 ‘풍년든 해의 유민들’에 대한 진황책으로까지 보았다. 결인청에 몰려 든 사람들은 ‘원래 거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민(流民)’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극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백성들인 것이다. 이점에서 오늘날 결인청의 기능과 정신을 계승한다면 ‘보편복지’ 보다는 사업의 실패로 일시 부채에 허덕이면서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도움의 손길이 주어진다면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외에도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인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늘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져 앞으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